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현대의 인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생명

광주 '영 아트페어'를 준비하며



천득염

“예향이라는 자긍심이나 문화적 잠재력을 무언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분들을 찾아 올해도 첫눈이 내리는 이른 겨울쯤 다시 '영 아트페어'를 시도해 볼 계획이다.”

필자는 지난해 미술인들의 우려 속에 광주에 선 처음으로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영 아트페어'를 개최했다. 짧은 작가들에게 참여의 장을 열어준다는 순수한 생각에 시도한 행사의 결과는 물론 참패. 들어간 경비의 반 정도 건졌다. 여러 사람들이 돈도 없는 건축 전공인이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한다고 우려하며 그만두기를 권했다. 다행히 중소기업을 하며 미술에 호기인 친구가 큰 액수의 경비를 출연해 주어 용기를 내 시도해본 것이다.

광주에는 그림을 사는 사람이 적어 아직 그림 경매시장인 옥션이 없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수많은 옥션이 상행하고 있다.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미술품으로 옮겨진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서울옥션과 K옥션이 양분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D옥션, 오픈옥션, 옥션M 등이 생겨났다. 특히 대구 MBC가 세운 옥션M은 대구·경북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 이외에 미술시장의 인기작가인 이우환, 천정자 등과 게르하르트, 앤디 워홀 등의 작품도 시장에 내놓았다.

얼마 전 현대미술의 율리픽이라고 불리지는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 아트바젤이 39회를 맞았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 바젤에서 단 5일 동안 열리는 아트페어에 전세계의 부호들을 비롯해 갤러리스트, 딜러, 컬렉터들이 모였다고 한다.

현대미술의 경향과 돈의 흐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아트바젤과 같은 미술시장이다. 특히 최근 뉴욕증시의 투자 수익률보다 미술품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미술시장은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난달 20개국 218개 화랑사 내놓은 6천여점의 현대미술품이 전시 판매되는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열렸다. 국내 최대의 미술장터인 이 행사는 대규모 전시공간에서 화랑들이 저마다 부스를 차리고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세계의 동시대 미술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화와 서예에 국한되지만 우리 지역 진도에도 조그마한 미술시장이 있다. 전남도가 설립한 남도예술은행이 미술인 창작지원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전국 처음으로 남종화의 산실 윤림산방에 설립했다.

전업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여 인터넷과 현장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판매 수입은 작품구입비 등으로 재투자된다. 앞으로 공식경매와 별도로 유명인사 소장품을 대상으로 매월 특별경매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미술인 창작지원과 예술영재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경제력이 낙후한 광주에서 아트페어를 여는

것은 무모한 일일까? '문화수도' 광주에 아트페어나 옥션이 없다면 예술적 토양은 어떻게 배양될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거대한 물리적 공간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도시 전반에 걸쳐 7대 문화지구가 새롭게 꾸며진다고 하는데, 무명의 젊은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팔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림만을 그리면서 어찌 일상을 살아갈까?

광주에 옥션을 할만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작품을 구할 수 있는지, 시장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이제 미술을 배고픈 예술의 영역에만 가두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배고픈 화가의 작품을 소화해내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처럼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광주에도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면 좋겠다.

예향이라는 자긍심이나 문화적 잠재력을 무언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분들을 찾아 올해도 첫눈이 내리는 이른 겨울쯤 다시 '영 아트페어'를 시도해볼 계획이다.

(전남대 교수·문화재 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광역경제권 '밀어붙이기' 철회해야

광주와 전남도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보이콧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5+2 광역경제권'에 따른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 거부와 관계없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설치 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광역경제권의 수정을 거부한 것이다.

호남을 배제한 광역경제권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강공 방침은 광역경제권에 반발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반발의 확산과 정치 쟁점화 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호남권 자치단체들을 압박하기에 앞서 왜 반발하고 있는지를부터 성찰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은 영호남 격차 등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영남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2개 권역인 데 비해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이 같은 권역에 묶여 있다.

권역별 선도산업도 영남에는 10개가 포함된 반면 호남에는 5개만 배정됐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가 영남권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도권 및 영남권 등과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수정해야 한다. 일부에서 광주·전남과 전북간 갈등을 부추키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선도산업의 재조정 등 결단을 해야 한다. 현재의 광역경제권을 고집해선 호남 '출대'를 노골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민증까지 위·변조하는 청소년 '탈선'

갈수록 대법해지고 있는 청소년 탈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유증업소에 드나들고 술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 위·변조 수법이 인터넷에 나돌며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큰 일이다.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유행병 수준이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19건 가운데 17건이 미성년자 신분증을 성인용으로 바꾼 경우지만 범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도가 파악한 위·변조 사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만을 대상으로 있어 사용되고 있는 가짜 신분증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배운대로 하면 5분만에 주민등록증 출생연도를 위·변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인쇄업자가 가짜 신분증을 무더기로 만들어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분증 위·변조 행위가 상행하고 있지만 당국은 단속은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짜 신분증이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비도 감삼실,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드나들다 보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짜 신분증이 사기대출이나 대리시험, 범행 후 도피행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높다.

공문서 위·변조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어른 흉내'를 내라는 철없는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 눈감아 줄 수 없을 일이다. 장난삼아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다.

경찰과 교육청, 자치단체 등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청소년 탈선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신분증 위·변조까지 방치해선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도 청소년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김재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데서, 수확이 끝난 들녘을 보면서, 올 한 해의 끝자락도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인연을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인연에 따라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만남과 헤어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겠으나 나에게 특별한 것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와의 만남이다. 그런데 일부 환자와의 인연 속에서 각박해진 세태를 느끼곤 한다. 의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잘못된 사회문화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다만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계란과 닭의 논

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의사가 많이 있다. 최근에 젊은 환자 한 분이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주된 내용은 의사가 치료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주치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고 진단해 본 결과, 통상의 경우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취 과정에서 생긴 자극에 의한 내부 출혈로 환부가 부어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었다. 전문가는 의사에서 치료 과정과 예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지만 환자는 자신의 경험만

인연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움을 생각하다

쟁처럼 부질없는 것일 수 있다. 요즘 의사노릇 하기 무척 힘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통상 의사는 환자 진료만을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인술을 요망받는다. 그러나 개업의는 경영자도 되어야 하고 과중한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무리 많은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시설과 숙련된 직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면 서비스(진료)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 공장 기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의사다. 과거에는 의사하면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는 직업의 소유자로서 사회적 선망의 대상으로 존중받기도 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만도 않다. 생활의 현장에

을 무기로 막무가내로 우길 뿐만 아니라 보상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성을 하게 되었다. 관(官)이 우선인 시대,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내오면서 생긴 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건 강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리 점들을 찾아내는 곳인가라든 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평소 애어먼 지인께서 만날 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지만 헤어질 때는 죽지 않는 한 원수가 되어 헤어진다곤 했던 말이 생각난다. 씁쓸하다. 헤어짐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보다. 만남의 과정이 기대감에 젖어 아름답듯이 헤어짐의 과정도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인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기울어 가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을 생각한다. <서정치과 대표원장>

금리인하 요구권 있으나 마나... 제도 개선해야

2년전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1천만원을 빌렸는데 필자는 금년 초에 직장에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좋아졌다. 그래서 최근 은행에 신용등급 재평가를 요구하며 대출금리를 인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필자는 자격 미달이라며 신용대출자만 금리인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절했다. 은행측은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람이나 주요 대상이며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인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신용상태

가 좋아질 경우 처음 대출받을 때보다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연 0.5~2.0%포인트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증을 쉽게 딸 것이며, 평균 임금인상율이라면 연봉이 당장 10%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처럼 은행의 요구조건이 계속 적용된다면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일 뿐이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완화하도록 은행권에 적절한 지침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정애·목소리 보광동

기고



최정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이 보장된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섣뜻 답하기 어렵다.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이라는 방패는 어떻게 생길까? 현대 심리학자인 매슬로는 욕구단계 이론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현대 도시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인구가 밀집

되고, 인공구조물이 중첩됨에 따라 단순 장애가 복합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도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란 일상생활 주변에서 안전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안전은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상 손해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사고가 없는 상태 또는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무사상(無死傷)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빨리빨리 문화'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70~80년대 경제발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조급증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부실공사, 안

안전한 삶을 위한 조건

되고, 인공구조물이 중첩됨에 따라 단순 장애가 복합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도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란 일상생활 주변에서 안전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안전은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상 손해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사고가 없는 상태 또는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무사상(無死傷)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빨리빨리 문화'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70~80년대 경제발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조급증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부실공사, 안

문화 등 총체적인 안전문화의 확산에 제일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나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불감증의 치유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어떤 예방법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함양과 소방기관의 시의적절한 대응 및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각종 사고피해의 최종적인 귀착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을 생활 속으로 실천하는 안전 인프라가 견고하게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지상파 아침방송 선정성 벗어나야

아침 시간에 시어머니와 자주 방송을 본다. 같은 여자끼리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시사 관련 내용들을 쉽게 풀어 보도해 아침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 방송의 소재들이 다소 선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성 매매나 성폭력 범죄, 살인사건 등은 이른 아침 청량한 기분으로 듣기엔 거부감이 드는 소재들이다. 특히 '부부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부부간의 다툼이나 불륜, 폭력 등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물론 주요 사건을 보도하고 주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점점 방송 본도가 많아지고 심지어 연이어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약속이라도 한 듯 불륜의 심각성을 보도할 때에는 정말 시청자를 위한 방송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케이블 방송이 성장하던 시기인 작년 말부터 기획보도도 아예 성범죄나 부부문제에 관련된 소재들로 돌아선 것 같다. 프로그램 배치와 소재 선택이 자유로운 케이블 방송과의 경쟁을 고려한 듯하다. 물론 자극적인 소재로 끌어내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방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좀 더 신중하고 건전한 소재로서 우리 삶의 진정성을 깨우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나현·광주시 북구 장동동

無等鼓

10월은 '노벨상의 계절'이다. 올해도 이 달에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미 결정됐다. 노벨상의 탄생은 '과과'와 '변영'의 아이라니다. 상은 전쟁에서 대량 살상무기로 쓰였던 다이내마이트의 발명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거부가 된 A. B. 노벨에 의해 만들어졌다. 노벨은 1895년 11월 27일 '인류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거액의 유산을 스웨덴의 왕립 과학아카데미에 기부했다. 이 유산을 기금으로 하는 노벨재단이 설립됐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1901년부터 상을 주었다.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자존심의 척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수상했다. 이번 이웃 일본은 올해까지 모두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물리학과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가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선진 과학기술국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서울대가 '노벨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옛 국제 개교 62주년 기념식에서 서울대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갖추고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벨상 프로젝트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공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이 돈 벌이에만 급급한 응용과학에 치중하고 기초학문을 등한시한다면 꿈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채우부 2200-628
경 처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